

골 침묵 깐 김동섭 FA컵 첫승 아끈다

시즌 4호꼴로 광주 FC의 원정 무승 부진을 날린 김동섭이 FA컵 승리를 노린다.

광주 FC의 김동섭이 1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하는 2011 K리그 10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동섭은 지난 14일 강원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2분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강원의 골망을 가르며 시즌 4호꼴을 신고했다. 3월 20일 울산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세 경기 연속골에 성공했던 김

장에서 '2011 하나은행 FA컵' 32강 수원 시청과의 경기를 치른다.

리그에서 1승을 거두는데 만족하며 8강 진출이 무산된 만큼 광주는 FA컵에 총력을 예고하고 있다.

FA컵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에게는 K리그 우승팀과 2.3위 팀들과 함께 이듬해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한국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광주의 첫 상대인 수원시청은 아마추



강원전서 시즌 4호꼴 광주FC 원정 무승 부진 털어

K리그 10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 첫 선정도

오늘 수원시청과 하나은행 FA컵 32강전 돌풍 기대

동섭은 한 달여 만에 득점포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김동섭의 골로 승점 3점을 추가한 광주는 원정 무승 징크스에서도 탈출했다.

K리그 공격포인트 부분 5위, 득점부분 7위로 올라선 김동섭은 '높이와 기술 겸비, 과감한 돌파'라는 평가와 함께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김동섭은 "울산전 이후 골이 터지질 않아 답답하기도 하고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했다"며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고, 그게 공격수의 역할이다. 열심히 훈련해 팬들에게 골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팀에 원정 첫 승을 선물한 김동섭은 FA컵 티켓에 욕심을 내고 있다.

광주는 18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

어립이지만 내셔널리그의 '전통강호', 지난해 FA컵에서도 대구 FC를 꺾고 16강에 진출했었다.

골 침묵을 깐 김동섭은 폐기와 스피드로 경험과 노련미를 갖춘 수원시청을 상대로 골 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팀 분위기도 좋다. 광주는 최근 4경기에서 3승1패를 거두며 조직력이 갖춰져 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을 끌두로 한 수비진도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고, 수비수 김은선과 유종현도 지난 경기 휴식으로 에너지를 비축해뒀다.

최민희 감독은 "FA컵을 리그의 한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이다"며 "젊음

과 폐기로 둥친 신생팀 돌풍으로 내년엔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ACL 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레이스는 시작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일주하는 '투어 오브 캘리포니아 사이클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이 16일(현지시간) 유바 카운티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구간을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성용·태희 “형! 나도 찰래요”

박지성재단 자선축구·정조국·이영표·이청용 이어 참가

박지성재단(JS파운데이션·이사장 박지성)이 6월 1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되는 자선 축구경기에 국가대표 주장인 박주영(AS모나코)과 기성용(셀틱), 남태희(발달시엔)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재단은 17일 정조국(오세르), 이영표(알힐랄), 이청용(불란)이 이미 자선축구를 함께하기로 했고, 박주영과 기성용, 남태희가 참가의사를 전해왔다 고 밝혔다.

또 일본 축구대표팀에서 활약했던 나

카타 히데토시와 마쓰이 다이스케(그로노블), 지난해 K리그 수원에서 뛰었던 리웨이핑(톈진 테다)과 지총국(옌볜)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볼렸다.

이번 경기의 타이틀 스폰서는 두산증공업이 맡게 돼 경기 명칭은 '제1회 두산 아시안드림컵'으로 확정됐다. 1995년 베트남에 진출한 두산증공업은 현지에서 발전설비, 해수淡化 설비 등을 생산하는 플랜트 공장을 준공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광주 씨티스포츠센터 개최

광주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전국볼링 대회가 24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씨티스포츠센터 볼링장에서 개최된다.

시각장애인 우수선수 발굴과 장애인 화합 교류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대회는 전국에서 180명의 선수가 참여해 TPB1(전맹부), TPB2·3(약시부)으로 나눠 실력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인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한다. 문의 062-672-953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순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제6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24일 화순에서 열린다.

전라남도생활체육회(회장 이탁우)가 주최하고 화순군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 전남본부별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 만 60세 이상의 생활체육 동호인 1700여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궁도,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6개 생활체육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게 된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종목별 최고령 참가자인 경심(생활체조·만89)·윤태정(게이트볼·만88)·나종수(궁도·만85)·박병철(경구·만81)·김정수(배드민턴·81)·조규준(탁구·만77) 동호인에게 건강상이 수여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주출신 유진아 우승

전국 사이클 옴니엄대회



나주출신 한국 사이클의 간판인 유진아(25·서울시청·사진)가 처음으로 개최된 옴니엄 국내대회에서 우승했다.

유진아는 17일 경기도 광명 벨로드롬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옴니엄 선수권대회 여자부에서 함께 7점을 얻어 김수현(전안시청·13점)과 남궁소영(서울시청·20점)을 꺾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점수로 결정한다. 남자부에선 장선재(27·대한한국공작)가 총 9점을 획득해 임재빈(가평군청·24점)과 임재연(의정부시청·20점)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유진아는 나주 시초등학교 6학년 때 사이클에 입문해 다시종, 전남미용고, 나주시청에서 활약하며 한국 여자 사이클의 간판으로 굽임해 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